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 서원 刊板을 대상으로 -

Wooden Printing Blocks Held in the Seowons in
Gyeongnam Province Listed on the *Nupango*

윤 상 기 (Yun, Sang-Gi)**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면서 | 4. 책판의 판종 분석 |
| 2. 경남 지역 소재 서원 | 5. 책판과 관련 판본의 성격 |
| 3. 『鏤板考』와 경남지역 서원 관련 장판기록 | 6. 나오면서 <참고문헌> |

< 초 록 >

이 글은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 지역 서원들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들을 대상으로 서원 간행 여부를 밝히고 그 성격들을 분석하되, 우선 서원 간행이 확실한 책판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

대상 책판들과 관련된 판본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관련 기록들도 이용하여 그 책판들이 서원에서 간행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鏤板考』에 수록된 19종의 대상 책판들 중 南冥先生文集, 彝尊錄, 咸安趙氏十忠實錄, 漁溪先生集 및 龜巖先生集의 5종이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5종의 책판 중 3종은 集部 別集類에 속하고 2종은 史部 傳記類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판에 판각된 작품들의 저자 혹은 피전자는 모두 책판을 간행한 서원의 배향자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배향자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들 5종의 책판들은 총 9종의 판본의 간행에 이용되었는데, 17C 전기, 18C 전기 및 18C 후기에 각각 3종씩 간행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5종은 초간에 해당되고, 4종은 중간에 해당된다.

要語: 『鏤板考』, 경남, 서원, 책판, 장판기록, 서원판본, 南冥先生文集, 彝尊錄, 咸安趙氏十忠實錄, 漁溪先生集, 龜巖先生集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0AA023).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kyoon@deu.ac.kr)

접수일: 2011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9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whether wooden printing blocks were published by seowons(서원) in Gyeongnam(경남) province, listed on *Nupango*(『鏤板考』)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In this research, only the wooden printing blocks almost certainly published by seowons were analyzed.

To prove their publication in seowons, this study examined the publications connected with wooden printing blocks and relevant documents. The result shows that five of nineteen titles listed in *Nupango* are sure to be published in seowons: *Nammyeong-seonsaeng munjib*(南冥先生文集), *Ijonrok*(彝尊錄), *Haman Jo-ssi sipchung sillok*(咸安趙氏十忠實錄), *Eogyeseonsaeng jib*(漁溪先生集), and *Guam-seonsaeng jib*(龜巖先生集). Three titles among them belonged to the subclass of a personal anthology in the Class of Collection of works and two were categorized into a biography in the Class of History. All authors or the subjects of these works were the people shrined by the seowons which published those titles or their descendents. So they were all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 worshipped by the related seowons. These five titles of wooden printing blocks have been used for publishing nine editions. Each of three editions had been respectively published in the early 16th and 17th centuries, and the late 17th century. Five of them were the first editions and four were the later editions.

Key words: *Nupango*(『鏤板考』), Gyeongnam(경남), Seowon(서원),
Wooden Printing Block, Holding Records of Wooden Printing
Blocks, Publications of Seowon(서원), *Nammyeong-seonsaeng
munjib*(南冥先生文集), *Ijonrok*(彝尊錄), *Haman jo-ssi sipchung
sillok*(咸安趙氏十忠實錄), *Eogyeseonsaeng jib*(漁溪先生集),
Guam-seonsaeng jib(龜巖先生集)

1. 들어가면서

正祖 때 楓石 徐有集(1764-1845) 등은 왕명을 받아 당시 중앙관서들과 8도 감영, 각 부, 목, 군, 현, 서원, 사찰 및 私家에 장치되어 있던 책판들을 조사하여 정조 20년(1796)에 「鏤板考」라는 책판목록을 집록하였다. 이 목록은 오늘날에 와서 당시의 목판본 출판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목록에 수록된 책판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로 이용됨으로 인하여 종종 誤用으로 오해받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목록은 엄밀하게 말하면 책판의 장판목록으로서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책판들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그 책판을 간행한 곳을 바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책판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서 책을 간행한 양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樣態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의 목판본 출판 상황을 파악하는데 「鏤板考」를 능가할 만한 마땅한 대안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껏 「鏤板考」에 수록된 책판들의 간행처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鏤板考」의 장판기록만으로 당시의 목판본 출판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의도적이었던 실수였던 간에 筆者나 話者가 「鏤板考」의 책판목록이 간행목록이 아닌 장판목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자료로 이용한 경우가 있는 탓에 오해 내지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책판들의 간행처를 밝혀 장판처와 간행처의 동일여부를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책판의 간행자를 밝히는 것이지만 곁들여 책판에 대한 기타 간행사항과 그 책판에 관련된 판본의 간행사항과 성격 분석까지 함께 다루었다. 여건상 「鏤板考」에 수록된 전체 책판에 대한 분석을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어려워, 우선 경남지역의 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만이라도 먼저 분석해보고자 한다.

예로부터 사가나 관청에서 책판을 새겨 책을 찍고 난 뒤, 책판의 관리나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종종 그 책판을 그 지역의 혹은 연고가 있는 사찰이나 서원에 보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따라서 『鏤板考』가 편집된 정조 20년(1796) 당시까지도 그런 연유로 서원에 보관만 하고 있던 책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래서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의 서원들에서 소장하고 있던 책판과 관련된 판본들을 찾아내어, 간기나 간행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용하여 간행처를 파악해보면, 그것이 서원에서 간행한 것인지 아니면 간행처는 다른 곳이고 책판만 보관했던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들 중에는 간기가 없고 관련 기록도 없거나 발견되지 않아 서원 간행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나, 서원에서 간행했을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 미비로 단지 가능성만 추측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연구의 규모상 이들을 한꺼번에 다루기가 어려워, 이 글에서는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책판에 대해서만 우선 다루기로 하고, 서원에서 간행하지 않고 소장만 한 책판과 간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간행의 가능성만 추정되는 책판은 연계된 다른 글에서 마저 다루기로 하겠다.¹⁾

이 글에서 ‘경남지역’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소속 8개 시인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및 양산시와 10개 군인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및 함천군을 아울러서 일컫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범주의 경남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鏤板考』에서 찾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글과 다소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김윤식의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²⁾은 『鏤板考』에 수록된 서원 책판을 이용해 서원판본을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경상도지역의 역사를 기술한 『慶尙道七百年史』의 한 부분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서원출판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³⁾ 더불어 <경상도 서원 간행 도서 목록>⁴⁾이란 간략한 목록이 작성되어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서원판본은 『鏤板考』에 기록된 장판

1) 『書誌學報』 第38號(2011. 12)에 게재할 예정이다.

2)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書誌學研究』 第41輯(2008. 12), 289-315.

3)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第3卷 分類史Ⅱ ([대구]: 慶尙北道, 1999), 672-686.

4)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第4卷 資料編 ([대구]: 慶尙北道, 1999), 1007-1030.

기록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목록이나 자료들을 조사하여 보충한 것인데, 서원판본 외에도 각종 읍지의 學校條에 수록된 祠나 影堂의 판본까지 포함한 것이며,⁵⁾ 간행의 하한시기는 대원군에 의한 서원철폐 이전까지로 하고 있다.⁶⁾

경남지역의 군·현 등 하부 지역 단위의 서원판본을 다룬 연구는 3건이 있는데, 필자가 발표한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⁷⁾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⁸⁾ 및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⁹⁾이다. 이 글들은 각각 1910년 경술국치 이전에 함양군, 진주군 및 함안군에 所在한 서원들에서 간행했거나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판본들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경남지역 소재 개별 서원별로 간행한 서적을 다룬 연구도 필자가 2004년에 발표한 “密陽 禮林書院版本考”¹⁰⁾와 “山淸 德川書院版本考”¹¹⁾의 2건뿐이다. 발표 당시까지 두 서원에서 각각 간행한 판본들을 조사하여 밝힌 것이다.

2. 경남 지역 소재 서원

2.1 전체 서원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愼齋 周世鵬(1495-1554)이 고려 말 성리학자였던 晦軒 安珦(1243-1306)을 배향하기 위해 祠廟를 짓고, 이듬해에 學舍를 건립하여 설립된 白雲洞書院이다. 중종 36년(1541) 7월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
- 5)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第3卷 分類史Ⅱ(1999), 674.
 - 6)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第3卷 分類史Ⅱ(1999), 674-675.
 - 7)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2輯(2005. 12), 237-271.
 - 8) 윤상기,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9), 295-322.
 - 9)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301-330.
 - 10)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문화콘텐츠연구(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제9집, 인문학과 문화(2004. 2), 367-402.
 - 11)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論集(東義大學校)』 第40輯, 人文·社會科學篇(Ⅰ)(2004. 2), 423-443.

이듬해인 중종 37년(1542) 8월에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순흥에 사묘를 설립하고, 중종 38년(1543) 8월에는 사묘 동쪽에 학사를 건립하여 백운동서원을 완성하였다. 서원 이름 백운동은 중국의 朱熹(南宋, 1130-1200)가 강학한 白鹿洞書院을 모방한 이름이다. 주세붕은 그가 편찬한 『竹溪志』의 서문에서¹²⁾ 사묘와 서원을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하여, 교화는 시급한 것이고 이는 尊賢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안향을 尊奉하는 사묘를 세웠고, 겸하여 유생들의 藏修를 위하여 서원을 세웠다고 적고 있다. 그 후 백운동서원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退溪 李滉(1501-1570)이 명종 5년(1550)에 임금에게 주청하여 ‘紹修書院’이란 御筆扁額을 하사 받으면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¹³⁾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8번지에 있는 소수서원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었다.

소수서원에 이어 명종 7년(1552)에 介庵 姜翼(1523-1567)이 주도하고 함양군수였던 烏有堂 徐九淵(1502-1562)이 지원하여 조선조 5현의 한 사람인 一蠹 鄭汝昌(1450-1504)을 추모하기 위해 함양에 濼溪書院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근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원들이 설립 혹은 훼손되면서 명멸해왔다.

초창기 서원의 건립활동은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 在地勢力들의 형성시기와 그 활동에 비례하였다. 따라서 서원은 당시 폭넓은 재지세력이 존재한 下三道 중 경상도에 단연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는데 이는 경상도가 사림세력이 강력하였고 또 그들이 일찍이 봉당정치的主역으로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일찍부터 향촌에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

경남지역에 서원이 처음 세워진 것은 祠宇 형태의 설립까지 포함한다면 고려

12) 周世鵬 編; 安昞烈 增補, 『竹溪誌』, 3卷1册, 木活字本(지갯다리획 印書體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21(1884)跋), 卷1, <序>[周世鵬].

13) ① 안장현 사진; 이상해 글, 『書院』(서울: 열화당, 1998), 7-8, 22.

② 鄭明燮, “慶北地域의 書院建築,”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편, 『毀撤書院調查報告』, ([慶山市]: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鄉土史研究叢書 第4册), 257.

14) 李樹煥, “嶺南地域 書院의 特徵과 教育活動,” 『韓國 書院의 研究動向과 再照明』(京畿大學校 人文學部 史學科 創設 20週年 紀念 및 溱誠學術研究院 學術심포지엄, 2000. 11. 10, 京畿大學校 浩然館 세미나실, 京畿大學校 溱誠學術研究院 主催), 45.

恭愍王(재위 1351-1374) 때 고성군 회화면에 金鳳書院으로 설립되었다가 숙종 39년(1713)에 대가면으로 이건·중수하면서 개칭한 葛川書院이 되겠지만,¹⁵⁾ 서원의 설립을 기준으로 한다면 명종 7년(1552)에 설립된 함양의 남계서원이 가장 이른다. 현재까지 한 때라도 서원의 명칭으로 존속했던 곳을 지역별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존속기간 중 사우나 서당과 같이 역할의 변천에 따라 서원 외의 명칭을 쓴 적이 있다하더라도 모두 서원명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표 1> 경남지역 소재 서원

| 지역 | 서원명 | 서원수 | |
|-------|--|--|----|
| 부산광역시 | 安樂書院 | 1 | |
| 울산광역시 | 鷗江書院 蘭谷書院 槃龜書院 石溪書院 圓岡書院 紫巖書院 楮山書院 太和書院 鷄山書院 鶴湖書院 | 10 | |
| 경상남도 | 창원시 龜巖書院 瞻斗書院 道峯書院 道山書院 雲巖書院 月影書院 甌山書院 檜溪書院 檜原書院 | 9 | |
| | 진주시 佳湖書院 慶林書院 廣齊書院 南岳書院 澹山書院 大覺書院 道東書院 新塘書院 龍崗書院 雲岡書院 臨川書院 鼎岡書院 淸溪書院 平川書院 | 14 | |
| | 통영시 | 白雲書院 | 1 |
| | 사천시 | 景白書院 龜溪書院 | 2 |
| | 김해시 | 龜川書院 勿峯書院 薇陽書院 松潭書院 新山書院 禮巖書院 | 6 |
| | 밀양시 | 廣川書院 南溪書院 德南書院 德淵書院 慕禮書院 栢谷書院 三江書院 莘南書院 禮林書院 五峯書院 龍安書院 龍淵書院 中峯書院 七灘書院 表忠書院 惠山書院 | 16 |
| | 거제시 | 盤谷書院 | 1 |
| | 양산시 | 蘇溪書院 小魯書院 松潭書院 甌山書院 | 4 |
| | 의령군 | 岐江書院 洛山書院 德谷書院 陶溪書院 峯淵書院 新溪書院 漁江書院 宜寧書院 宜山書院 宜陽書院 泰巖書院 | 11 |
| | 함안군 | 琴川書院 沂陽書院 德巖書院 德淵書院 道溪書院 道南書院 道林書院 道巖書院 東山書院 杜陵書院 祥鳳書院 西山書院 松汀書院 新巖書院 廬陽書院 仁衢書院 淸溪書院 泰陽書院 坪川書院 鴻浦書院 | 20 |
| | 창녕군 | 高岡書院 冠山書院 光山書院 龜峯書院 德峯書院 道山書院 道泉書院 東山書院 勿溪書院 蘇谷書院 燕巖書院 雲谷書院 | 12 |

15) 'NAVER 블로그' <<http://blog.naver.com>> [2008. 10. 4. 검색].

| 지역 | | 서원명 | 서원수 |
|------|-----|---|-----|
| 경상남도 | 고성군 | 佳山書院 葛川書院 景山書院 景顯書院 昆義書院 菊山書院 德山書院 道山書院 道淵書院 鳳山書院 繡林書院 新道書院 雲谷書院 葦溪書院 柳村書院 虎岳書院 | 16 |
| | 남해군 | | 0 |
| | 하동군 | 永溪書院 玉洞書院 玉山書院 仁川書院 宗川書院 | 5 |
| | 산청군 | 大浦書院 德川書院 道川書院 杜陵書院 牧溪書院 文山書院 培山書院 碧溪書院 社洞書院 西溪書院 西湖書院 新溪書院 浣溪書院 淸谷書院 平川書院 孝山書院 | 16 |
| | 함양군 | 龜川書院 濼溪書院 鹿峯書院 漣洲書院 德巖書院 道谷書院 柏淵書院 西山書院 松湖書院 龍門書院 井山書院 靑溪書院 華山書院 黃巖書院 | 14 |
| | 거창군 | 龜淵書院 金溪書院 基洞書院 藍田書院 茶川書院 德泉書院 道山書院 屏巖書院 星川書院 嶧川書院 濱濱書院 迎勝書院 浣溪書院 龍源書院 鶴林書院 華山書院 | 16 |
| | 합천군 | 古巖書院 龜山書院 龜淵書院 魯峯書院 巽山書院 德陽書院 德源書院 道溪書院 道淵書院 冕巖書院 明谷書院 栢山書院 松原書院 松湖書院 新川書院 玉溪書院 玉田書院 龍岡書院 龍巖書院 龍淵書院 雲溪書院 雲衢書院 月華書院 伊溪書院 伊陽書院 伊淵書院 中洞書院 淸溪書院 淸川書院 平川書院 河南書院 華巖書院 會山書院 | 33 |

경남지역에 속하는 2개 광역시와 경상남도 소속의 8개 시와 10개 군들 중에서 현재까지 한 때라도 서원의 명칭으로 존속했던 곳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07개인데, 이를 많은 순서대로 보면 합천군에 33개, 함양군에 20개, 밀양시, 고성군, 산청군 및 거창군에 각 16개씩, 진주시와 함양군에 각 14개씩, 창녕군에 12개, 의령군에 11개, 울산광역시에 10개, 창원시에 9개, 김해시에 6개, 하동군에 5개, 양산시에 4개, 사천시에 2개, 부산광역시, 통영시 및 거제시에 각 1개씩의 서원이 각각 있었고, 유일하게 남해군에만 한 개의 서원도 없었다.

2.2 정조 20년(1796) 당시 존속 서원

<표 1>의 총 207개의 경남지역 소재 서원들 중 연구대상인 『鏤板考』의 편찬이

끝난 정조 20년(1796) 당시에 서원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곳만 추려보면 <표 2>와 같다. 창건년도가 불분명한 함천군의 伊溪書院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원의 소재 지역명과 서원명은 「鏤板考」에 맞추어 정조 20년(1796)을 기준으로 재정리 하였으며, 사후 상태를 포함하여 전체 존속기간과, 서원 상태의 존속기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표 2> 정조 20년(1796) 당시의 경남지역 소재 서원

| 지역 | 서원명 | 존속기간 | 서원 존속기간 |
|-------|---------------------|-------------------------------|----------------------------|
| 거창부 | 道山書院 | 1661-1869 | „ 16) |
| | 屏巖書院 | 1707-1868 | „ |
| | 滄濱書院 | 1744-1864 | „ |
| | 浣溪書院 | 1664-1868 | „ |
| | 龍源書院 | 1694-1868 | „ |
| | 龍泉書院 ¹⁷⁾ | 1712-1864, 1985-현재 | „ |
| 김해부 | 松潭書院 | 1716-1868, 1978-현재 | 1784-1868, 1978-현재 |
| | 新山書院 | 1578-1592, 1608-1871, 1999-현재 | „ |
| 창원부 | 瞻斗書院 | 1731-1868, 1947-1950, 1955-현재 | „ |
| | 檜原書院 | 1634-1868 | „ |
| 진주목 | 大覺書院 | 1610-1871, 1947-현재 | „ |
| | 德川書院 | 1576-정유재란, 1603-1871, 1918-현재 | „ |
| | 新塘書院 | 1713-1868 | „ |
| | 臨川書院 | 1702-1868, 1937-? | „ |
| | 鼎岡書院 | 1694-1868 | „ |
| | 宗川書院 | 1677-1868, 1920-현재 | „ |
| 동래도호부 | 安樂書院 | 1605-현재 | 1652-현재 |
| 밀양도호부 | 南溪書院 | 1704-1871, 1907-현재 | „ |
| | 三江書院 | 1563-임진왜란, 1702-1868, 1904-현재 | ?-임진왜란, 1702-1868, 1904-현재 |
| | 西山書院 ¹⁸⁾ | 1753-1868, 1971-현재 | „ |
| | 禮林書院 | 1567-임진왜란, 1606-1871, 1975-현재 | „ |
| | 五峯書院 | 1780-1868, 1989-현재 | 1796-1868, 1989-현재 |
| | 中峯書院 | 1707-1868 | „ |
| | 表忠書院 | 1610-1871, 1927-현재 | „ |

| 지역 | 서원명 | 존속기간 | 서원 존속기간 |
|-------|---------------------|---------------------------|--------------------|
| 울산도호부 | 鷗江書院 | 1678-1871 | " |
| | 瑯山書院 | 1745-1871 | " |
| 하동도호부 | 永溪書院 | 1699-1868 | " |
| | 仁川書院 | 1710-1868 | " |
| 함안도호부 | 琴川書院 | 1569-1868 | " |
| | 德巖書院 | 1617-1868 | " |
| | 道溪書院 | 1780-1868 | " |
| | 道林書院 | 1672-1868 | " |
| | 道巖書院 | 1679-1868 | " |
| | 東山書院 ¹⁹⁾ | 1677-1868, 1970-현재 | " |
| | 西山書院 | 1703-1868, 1902-현재 | 1703-1868, 1984-현재 |
| | 松汀書院 | 1721-1868 | " |
| 양산군 | 新巖書院 | 1721-1868 | " |
| | 廬陽書院 | 1720-1869 | 1789-1869 |
| 초계군 | 蘇溪書院 | 1783-1868, ?-현재 | " |
| | 松潭書院 | 1696-1871, 1986-현재 | 1717-1871, 1986-현재 |
| | 德陽書院 | 1784-1868 | " |
| | 德源書院 | 1692-1868, 1902-현재 | " |
| | 道溪書院 | 1692-1868 | " |
| | 栢山書院 | 1669-1868 | " |
| | 松原書院 | 1692-1868, 1952-현재 | " |
| | 玉溪書院 | 1726-홍선대원군 서원철폐령, 1867-현재 | " |
| 함양군 | 月華書院 | 1715-1868 | " |
| | 淸溪書院 | 1564-1868, 1936-현재 | " |
| | 龜川書院 | 1702-1868, 1983-현재 | " |
| | 濼溪書院 | 1552-1597, 1603-현재 | " |
| | 漕洲書院 | 1579-1868 | " |
| | 道谷書院 | 1701-1868, 2000-현재 | " |
| | 柏淵書院 | 1670-1868 | 1745 이후-1868 |
| 합천군 | 魯峯書院 | 1772-1868, 1947-현재 | " |
| | 聾山書院 | 1679-1868, 1985-현재 | " |
| | 道淵書院 | 1707-1868, ?-현재 | " |
| | 明谷書院 | 1675-1869, 1938-현재 | 1675-1869 |
| | 松湖書院 | 1780-1868, 1957-현재 | " |
| | 新川書院 | 1684-1868 | " |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서원 藏板

| 지역 | 서원명 | 존속기간 | 서원 존속기간 |
|-----|------|---|----------------------------------|
| 합천군 | 龍淵書院 | 1662-1867, ?-현재 | " |
| | 雲衢書院 | 1786-1868, 1923-현재 | 1786-1868 |
| | 伊陽書院 | 1772-1868 | " |
| | 伊淵書院 | 1587-1869 | " |
| | 中洞書院 | 1691-1868, 1947-현재 | " |
| | 華巖書院 | 1653-1868 | " |
| | 會山書院 | 1766-1868 | " |
| 거제현 | 盤谷書院 | 1705-1868, 1906-현재 | " |
| 고성현 | 葛川書院 |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1712, ²⁰⁾ 1713-1868, 1880-현재 | 1713-1868, 1880-현재 |
| | 昆義書院 | 1738-1868 | " |
| | 道山書院 | 1623-1868, 1946-현재 | " |
| | 道淵書院 | 1687-1868, 1920-현재 | " |
| | 柳村書院 | 1699-1868 | " |
| 단성현 | 道川書院 | 1461-임진왜란, 1612-1871, 1891-현재 | 1554-임진왜란, 1612-1871, 1975-현재 |
| | 杜陵書院 | 1588-1868 | 1708-1868 |
| | 牧溪書院 | 1778-1868 | " |
| | 培山書院 | 1792-1868, 1919-현재 | " |
| | 碧溪書院 | 1511-1868, ?-현재 | " |
| | 浣溪書院 | 1787-1871, 1883-현재 | " |
| | 淸谷書院 | 1702-1871, 1922-현재 | " |
| 사천현 | 龜溪書院 | 1606-1868, 1931-현재 | " |
| 산청현 | 大浦書院 | 1693-1868, 1874-현재 | " |
| | 西溪書院 | 1606-1868, 1921-현재 | " |
| | 西湖書院 | 1701-1868 | " |
| | 平川書院 | 1694-1868 | " |
| 삼가현 | 古巖書院 | 1695-1868 | " |
| | 龍岡書院 | 1664-1868 | " |
| | 龍巖書院 | 1576-1868 | " |
| | 平川書院 | 1689-1868 | " |
| 안의현 | 龜淵書院 | 1694-1868, 1989-현재 | " |
| | 星川書院 | 1703-1872 | " |
| | 嶧川書院 | 1635-1868 | " |
| | 龍門書院 | 1583-1868 | " |
| | 鶴林書院 | 1719-1865 | " |
| | 黃巖書院 | 1715-1868 | " |

| 지역 | 서원명 | 존속기간 | 서원 존속기간 |
|-----|---------------------|--|----------------------------------|
| 언양현 | 槃阜書院 ²¹⁾ | 1712-1728, 1729-1871, 1983-현재 | " |
| 영산현 | 德峯書院 | 1693-1868 | " |
| | 道泉書院 | 1701-1868 | " |
| 의령현 | 德谷書院 | 1654-1871 | 1654-1871 |
| | 泰巖書院 | 1789-1868, 광복 후-현재 | " |
| 창녕현 | 高岡書院 | 1713-1868 | 1746-1868 |
| | 冠山書院 | 1581-1868 | 1620-1868 |
| | 光山書院 | 1795-1868 | " |
| | 勿溪書院 | 1712-1868, 1995-현재 | 1729-1868, 1995-현재 |
| | 燕巖書院 | 1695-1871 | " |
| 칠원현 | 沂陽書院 | 1701-1868, 1971-현재 | " |
| | 德淵書院 | 1591-임진왜란, 1676-1868, 1911-6·25 사변, 1964-현재 | 1591-임진왜란, 1676-1868, 1964-현재 |
| | 淸溪書院 | 1670-1868, ?-현재 | " |
| | 泰陽書院 | 1640-1868, 1950-현재 | " |
| | 鴻浦書院 | 1782-1868, 1980-현재 | "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조 20년(1796) 당시 서원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곳은 모두 109개이다. 이를 서원이 많이 존속하고 있었던 지역순으로 보면, 함천군이 13개 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함안도호부에 10개, 초계군에 8개, 밀양도호부와 단성현에 각 7개씩, 거창부, 진주목 및 안의현에 각 6개씩, 함양군, 고성현, 창녕현 및 칠원현에 각 5개씩, 산청현과 삼가현에 각 4개씩, 김해부, 창원부, 울산도호부, 하동도호부, 양산군, 영산현 및 의령현에 각 2개씩, 동래도호부, 거제현, 사천현 및 언양현에 각 1개씩의 서원이 있었다.

16) 좌와 동일 표시.

17) 현 명칭: 華山書院.

18) 현 명칭: 惠山書院.

19) 현 명칭: 德山書院.

20) 여러 글에서 고려 공민왕(재위 1351-1374) 때부터 숙종 38년(1712)에 철폐될 때까지 金鳳書院으로 불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하여 서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중종 38년(1543)에 설립한 白雲洞書院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21) 현 명칭: 槃龜書院.

3. 「鏤板考」와 경남지역 서원 관련 장관기록

3.1 「鏤板考」

「鏤板考」는 정조의 명에 의하여 서유구 등이 집록한 책판목록이다.

서유구는 조선 후기의 학자·문신으로 자는 準平, 호는 楓石이며, 본관은 大丘이다. 대제학을 지낸 保晚齋 徐命膺(1716-1787)의 손자이며, 이조판서를 지낸 徐浩修(1736-1799)의 아들이다. 정조 14년(179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외직으로는 군수·관찰사를 거치고, 내직으로는 대교·부제학·이조판서·우참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학을 이어 특히 농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저술로는 「鏤板考」 외에도 「林園十六志」, 「種藷譜」, 「杏浦志」, 「金華耕讀記」, 「經界策」, 「蘭湖漁牧志」, 「鷓鴣志」, 「饗饌志」 등이 있다. 시호는 文簡이다.²²⁾

「鏤板考」는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정조 20년(1796)에 편찬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범위는 편찬 당시 중앙관서들과 8도 감영, 각 부, 목, 군, 현, 서원, 사찰 및 사가에 장치되어 있던 책판들을 조사한 것이다. 그 편성체제와 수록 책판 종수를 살펴보면, 먼저 御撰과 御定の 2門을 별치하여 왕의 親著書 20종과 命撰書 46종을 열거한 다음, 사부분류법을 택하여 경부 8류 2속에 47종, 사부 5류 5속에 74종, 자부 11류 4속에 119종, 집부 3류에 304종의 책판을 수록하여 총 610종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각 책판에 대한 기입은 책판명을 表出하고 그 아래에 권수표시를 하였으며, 다음 행부터는 편저자명과 그의 略傳, 부분적으로는 서·발문 및 내용 소개, 책판의 소장처, 刊缺 여부, 印紙 張數 등을 포함한 간결한 해제를 달고 있으며, 각 도의 책판의 소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²³⁾

「鏤板考」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林園十六志」²⁴⁾가 있는데, 일명 「林

22)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011. 10. 27. 검색].

23) 「鏤板考」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解題'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補遺·索引 (서울: 保景文化社, 1995), 212-213과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2011. 9. 28. 검색]을 함께 참고하였다.

園經濟志』·『林園經濟十六志』라고도 불리는 책이다. 서유구가 편찬한 이 책의 권106 怡雲志 7에 있는 圖書藏訪 속에 京外樓板이 있다. 『韓國의 冊板目錄』에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원본을 영인하였는데,²⁵⁾ 관심의 아래쪽에 ‘自然經室藏’이라는 글이 있어서 그의 稿本으로 짐작되며, 또한 『鏤板考』의 草稿로 생각되는 책판목록이다.²⁶⁾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鏤板考』는 洪命憲가 교정하여 1941년 6월 20일에 京城의 大同出版社에서 鉛印本으로 출판한 7권1책본을 『韓國의 冊板目錄』 下에 영인 수록한 것이다.²⁷⁾

3.2 경남지역 서원 관련 장판기록

이 책판목록에 所載된 書院藏板은 모두 78개 서원에 167종이다. 이들 중 경남 지역 소재 서원의 책판들을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 소재 서원 장판

| 지역 | 서원명 | 책판명 | 목록상의 책판명 |
|------|--------|-------------|----------|
| 晉州 | 大覺書院 | 覺齋河先生文集 | 覺齋集 |
| | | 松亭先生文集 | 松亭集 |
| | 德川書院 | 南冥先生文集 | 南冥集, 別集 |
| | 新塘書院 | 槽巖集 | 槽巖集 |
| | | 知足堂趙先生內外忠烈記 | 知足堂忠烈記 |
| | | 丹圃遺稿 | 丹圃集 |
| 臨川書院 | 浮查先生文集 | 浮查集 | |

24) ‘解題,’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853-903.

25) 徐有榘 編, 『林園十六志』,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卷105,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1995), 853-903.

26) ‘解題,’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補遺·索引(1995), 212.

27) 徐有榘 等編; 洪命憲 校訂, 『鏤板考』, 7卷1冊, 鉛印本 (京城: 大同出版社, 昭和 16(1941)),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1995), 913-1174.

| 지역 | 서원명 | 책판명 | 목록상의 책판명 |
|------|--------|----------|-----------|
| 密陽 | 禮林書院 | 彝尊錄 | 彝尊錄 |
| | | 佔畢齋集 | 佔畢齋詩集, 文集 |
| 咸安 | 德巖書院 | 大笑軒先生逸稿 | 大笑軒集 |
| | 西山書院 | 咸安趙氏十忠實錄 | 趙氏十忠實錄 |
| | | 漁溪先生集 | 漁溪集 |
| | | 損庵集 | 損菴集 |
| 松汀書院 | 澗松先生文集 | 澗松堂集 | |
| 泗川 | 龜巖書院 | 龜巖先生集 | 龜巖集 |
| 山淸 | 西溪書院 | 德溪先生文集 | 德溪集 |
| 安義 | 龍門書院 | 葛川先生文集 | 葛川文集 |
| | | 桐溪先生文集 | 桐溪文集 |
| | | 瞻慕堂先生文集 | 瞻慕堂文集 |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조 20년(1796) 당시 경남지역에 존속하고 있었던 서원은 총 109개인데, 그들 중 「鏤板考」의 장판기록에는 진주목의 4개 서원에서 7종, 밀양도호부의 1개 서원에서 2종, 함안도호부의 3개 서원에서 5종, 사천현의 1개 서원에서 1종, 산청현의 1개 서원에서 1종, 안의현의 1개 서원에서 1종의 책판, 모두 6개 지역 11개 서원에서 총 19종의 책판들을 장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수록되어 있다.

4. 책판의 판종 분석

위의 3.2 경남지역 서원 관련 책판기록에서 파악된 총 19종의 책판들을 이용하여 간행한 판본들을 모두 찾아내어 서원 간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책판은 南冥先生文集, 彝尊錄, 咸安趙氏十忠實錄, 漁溪先生集 및 龜巖先生集의 5종이고, 서원 간행이 불확실한 책판은 覺齋河先生文集, 松亭先生文集, 浮查先生文集, 佔畢齋集, 大笑軒先生逸稿, 損庵集, 澗松先生文集, 德溪先生文集, 葛川先生文集, 桐溪先生文集 및 瞻慕堂先生文集의 11종이며,

서원에서 간행하지 않은 책관은 槽巖集, 知足堂趙先生內外忠烈記 및 丹圃遺稿의 3종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5종의 책판들만을 대상으로 책판의 刊刻과 變化사항, 판본의 성립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서 서원 간판임을 밝히고자 한다.

4.1 南冥先生文集²⁸⁾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 晉州 德川書院에 장판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南冥集 五卷, 別集 九卷’²⁹⁾에 해당하는 책관은 3종의 판본을 간행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첫 번째는 光海君 9년(1617) 가을에 간행된 『南冥先生學記類編』으로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南冥先生學記類編 / 曹植(朝鮮) 著. -- 木板本(初刊). -- [晉州]: 德川書院, 光海君 9(1617)
2卷2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6 × 19.0 cm, 有界, 11行21字 注雙行, 內向2 葉花紋魚尾

版心題: 學記

刊記: 萬曆丁巳(1617)秋德川書院刊

敘: 萬曆四十五年(1617)…鄭仁弘…

南冥 曹植(1501-1572)이 평생 독서한 것을 筭記하고 作圖한 것이 學記였다. 光武 원년(1897) 4월 이후에 山天齋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南冥先生文集』에 수록된 龍山 李晚寅(1834-1897)이 高宗 31년(1894)에 작성한 발문에 의하면, 조식이 평소 글을 읽을 때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기록하여 책자로 만든 것을 ‘學記’라

28) 이 책판의 판본들에 대한 것은 필자가 “山淸 德川書院版本考”로 이미 발표한 내용(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2004. 2), 428-433)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29) 徐有榘 等編(1941), 1097.

하였다 한다.³⁰⁾ 이것은 질서가 없는 手抄였으므로 제자인 來庵 鄭仁弘(1535-1623)이 스승의 허락을 얻어 「近思錄」의 체재로 類編하여 광해군 9년(1617)에 「南冥先生學記類編」이란 제목으로 간행하였다.³¹⁾ 南冥은 조식의 호이다.

권말에 ‘萬曆丁巳秋 德川書院刊’이라는 篆字 간기가 있어서 광해군 9년(1617) 가을에 덕천서원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³²⁾ 간기에 간행지 표시는 없다. 그러나 당시 덕천서원으로 불리던 곳은 이곳뿐이며 또한 저자인 조식을 배향하고 있었으므로,³³⁾ 배향자와 관련된 책을 刊印한 경우가 많았던 관례에 비추어 이 서원의 판본임이 확실하다. 현재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시천면은 광무 10년(1906)에 산청군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진주목에 소속되어 있었다.³⁴⁾ 따라서 간행지는 晉州가 되겠다.

이 판본에는 권수에 정인홍의 敍와 범례가 있고, 본문이 전개된 뒤 권말에 간기가 있다. 그런데 광해군 15년(1623)에 인조반정이 있는 뒤 정인홍의 서문 책판을 없애고 발문을 새로 지어 끝에 붙였다. 조식의 차남인 慕亭 曹次磨(1557-1639)가 아들들³⁵⁾을 桐溪 鄭蘊(1569-1641)에게 보내 짓게 한 것이다.³⁶⁾

이 「南冥先生學記類編」은 뒤이어 상세히 다룰 숙종 28년(1702)간 「南冥先生文集」을 간행할 때 그 책판이 대부분 그대로 이용된다. 즉, 숙종 28년(1702)에 「南冥先生文集」을 간행할 때 문집의 권3, 4에 別行되던 「南冥先生學記類編」上下를 편입하면서 그 책판을 이용하되 바꾸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30) 曹植 著; 曹垣淳 編, 『南冥先生文集』, 11卷6冊, 木板本 ([德山]: [山天齋], [光武 元(1897) 頃], <重刊南冥先生文集跋>[李晚寅].

“若夫先生之有學記 只是讀書時筭錄 ….”

31) 金侖壽, “『南冥集』의 冊板과 印本の 系統,” 『南冥學研究』 第2輯(1992), 225.

32) 자세한 간행경과는 吳二煥, 『南冥學派研究』 上卷 (진주: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144-148을 참조.

33) 덕천서원 배향자: 曹植(1501-1572) · 崔永慶(1529-1590).

34) ① 河致根, “산청군 山淸郡: 읍 · 면: [시천면 矢川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성남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50.

② 安東대학교 安東문화연구소 지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동양문화산책 10)』, (서울: 예문서원, 2000), 59.

35) 曹敬明(朝鮮, ?-?) · 曹益明(朝鮮, ?-?) · 曹復明(朝鮮, ?-?).

36) 金侖壽(1992), 225.

補板을 새기거나 埋木한 것이다. 권3, 4의 제1장에 ‘南冥先生學記類編 上’과 ‘南冥先生學記類編 下’로 되어 있는 권수제와 권차표시를 ‘南冥先生文集 卷三’과 ‘南冥先生文集 卷四’로, ‘學記’로 되어 있는 관심제는 ‘南冥先生文集’으로 바꾸어 다시 새겼고, 권4의 제63-65장도 보판으로서 범례와 발문을 다시 새긴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원 책판에 ‘學記’로 되어 있던 관심제는 모두 매목으로 ‘南冥先生文集’이라고 고쳤다.³⁷⁾ 따라서 『鏤板考』에 기록된 책판 중 일부는 이 판본의 간행을 위해 판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숙종 28년(1702)의 『南冥先生文集』 간행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南冥先生學記類編』의 편입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개편, 개간이 이루어졌으며, 『南冥先生別集』까지 포함하여 한 질로 편성되어 유통되었다. 그리고 영조 40년(1764)경에 다시 간행할 때에도 이 책판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쓰였기에, 정조 20년(1796)에 편찬된 『鏤板考』에 晉州 德川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南冥集 五卷, 別集 九卷’에 해당하는 책판은 광해군 9년(1617)에 새긴 『南冥先生學記類編』 책판의 대부분과 숙종 28년(1702)의 『南冥先生文集』 간행을 위해 새로 새겼거나 매목한 책판들 중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에 그대로 이용된 책판들, 그리고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을 위해 새로 새겼거나 매목한 책판들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동일한 책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林園十六志』, 『嶠南冊錄』 및 『五車書錄』에 수록된 南冥集 책판 기록에도 적용된다. 『林園十六志』,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鏤板, 集類條에는 晉州 德川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南冥集 十四卷’³⁸⁾이 있다. 그리고 정조 7년(1783)경에 작성된 『嶠南冊錄』의 晉州條에는

南冥集
學記 曹植著 白紙十六束六張
別集

37) 金侖壽(1992), 224-225.

38) 徐有槩 編([刊寫年未詳]), 885-886.

이라는 기록이 있고, 정조 15년(1791) 이후에 작성된 「五車書錄」의 慶尙道 晋州 條에도

| | |
|-----|-------|
| 學記 | 白紙十七束 |
| 別集 | |
| 南冥集 | 紙十七束 |

이라는 기록이 있다.³⁹⁾ 이들 책판목록들도 모두 「鏤板考」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서술할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작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책판 기록들이 가리키는 것도 「鏤板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그러나 「完營冊板目錄」에 있는 남명집 관계 책판 기록은 위와는 약간 다른 경우이다. 「完營冊板目錄」의 慶尙道 晋州條에도

| | |
|----------|--------|
| 南冥集白紙十七束 | 曹植 / 著 |
| 學記白紙十七束 | |
| 別集白紙十七束 | |

이라는 기록이 있다.⁴⁰⁾ 그러나 「完營冊板目錄」은 남명집의 숙종 28년(1702) 간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영조 35년(1759) 2월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숙종 28년(1702)의 간행에 사용된 책판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完營冊板目錄」에는 晋州라는 지역만 표시되어 있으나, 이 판본을 찍은 책판을 판각한 곳이 덕천서원임이 확실하고, 또한 당시 진주 지역 내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南冥先生文集」의 책판이 보관되었다는 기록이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덕천서원에 장관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이 확실하다. 다만, 「完營冊板目錄」을 비롯하여 「嶠南冊錄」과 「五車書錄」에서도 나타나는 ‘學記’ 부분의 기록이 다소 모호한데, 이미 「南冥先生文集」 권3,

39) 金侖壽(1992), 229.

40) 「完營冊板目錄」 50張, 筆寫本 ([全州]: [全羅監營], [英祖 35(1759)頃]),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613.

4에 상하로 편집된 것을 그냥 別錄한 것으로 보인다.

『南冥先生學記類編』의 판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181.152 조식남, 181.152 조식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1340),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고서(II) 181.132 18) 등에 완질 혹은 영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영인본이 南冥學研究院의 『南冥學研究論叢』, 第4輯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 晉州 德川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南冥集 五卷, 別集 九卷’에 해당하는 책판이 인출에 이용된 3종의 판본 중 앞에서 든 『南冥先生學記類編』 외의 2종은 각각 속종 28년(1702)과 영조 40년(1764)경에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 2종의 『南冥先生文集』이다. 그 판각과 인출의 내력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간행된 여러 판본들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조식의 문집은 저자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뒤인 선조 35년(1602)에 그의 제자인 정인홍에 의해 처음으로 편집되었다.⁴¹⁾ 편집된 『南冥先生集』 3권은 해인사에서 목판으로 초간 되었는데,⁴²⁾ 간행년에 대해서는 선조 35년(1602)설과 선조 37년(1604)설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는 吳二煥의 주장으로 편집된 그 해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⁴³⁾ 후자는 金侖壽의 주장으로 편집 2년 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⁴⁴⁾ 두 사람의 초간본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이어지는 중간본의 간행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초간본과 중간본에 관련하여 두 사

41) 曹植 著, 『南冥先生集』 3卷2冊, 木板本 ([陝川]: [海印寺], [宣祖 35(1602)-宣祖 37(1604)頃]), <南冥先生集序>[鄭仁弘].

“先生既沒 收錄得若干篇 亦出於後輩 傳誦之餘 隨聞隨記 頗有訛誤 是誠後學之一大恨也 就爲一通 鳩工鏤梓.”

42) 曹植 著, 『南冥先生集』,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海君 1(1609)), <跋>[文景虎].

“向在壬寅年間 我來庵先生 與一二同志 慮先師遺響無傳 收拾詩文若干篇 入梓于伽倻之海印寺.”

43) ① 吳二煥, “南冥集板本考(Ⅰ): 來庵刊本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韓國思想史學會)』, 第1輯(1987), 173-178.

② 金侖壽, “南冥集 板本 研究上의 爭點,” 『南冥學研究』, 第6輯(1996), 17-21.

44) ① 金侖壽(1992), 208-210.

② 金侖壽(1996), 17-21.

람이 서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간본에 대해서, 吳二煥의 주장에 따르면 초간본은 선조 35년(1602)에 간행되었으나 판본의 전존본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책판은 판각 후 해인사에서 보관하였는데 印布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판각이 불타올 때 함께 소실되었다고⁴⁵⁾ 한다. 한편 金侖壽의 주장에 따르면 선조 35년(1602)에 정인홍에 의해 문집이 편집되었으나 간행은 2년 후인 선조 37년(1604)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책판이 해인사에 보관되었다가 소실된 것이라고 한다.⁴⁶⁾

다음으로 중간본은 초간본이 간행되고 2년이 지난 뒤에 간행되는데, 吳二煥은 초간본을 선조 35년(1602)에 간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따라서 초간본의 판본을 가지고 정인홍의 문인인 草亭 許從善(1563-1642)이 다시 善寫해 내고 경상도관찰사 拙庵 柳永詢(1552-1630)이 또한 工役을 도와 새로 간행한 것은⁴⁷⁾ 선조 37년(1604)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金侖壽는 초간본의 간행이 선조 37년(1604)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따라서 허종선이 다시 선사하고 유영순이 공역을 도와 새로 간행한 것은 선조 39년(1606)이 되며, 간행은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역시 해인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⁴⁸⁾

중간본은 권두에 정인홍이 선조 37년(1604) 8월에 쓴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도 역시 정인홍이 쓴 識文이 있다. 그리고 「西厓先生文集」에 의하면 西厓 柳成龍(1542-1607)이 선조 37년(1604)에 쓴 간략한 발문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⁹⁾ 이 판본의 특징은 전 3권의 각권 권수제가 ‘南冥先生集’인 반면 권말제는 ‘南冥集’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앞의 중간본 3권에 32장으로 된 보유 1권을 추가한 개정보유본 「南冥

45) 曹植 著, 『南冥先生集』(1609) <跋>[文景虎].

“入棹于伽椰之海印寺 印布未廣 藏閣遽灰 吁不幸甚矣.”

46) 金侖壽(1992), 208-213.

47) 曹植 著, 『南冥先生集』(1609) <跋>[文景虎].

“後數年 更起刊役 許生從善 寫出刊本 柳巡察永詢 亦助工役 功一歲而告訖.”

48) 金侖壽(1992), 208-213.

49) 발문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孟子曰 誦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吾於此書亦云 萬曆甲辰跋.”

先生集」이 간행되었다. 중간본의 간행 때 빠진 것을 수집하여 광해군 즉위년(1608) 10월부터 追刊을 시작하여 권말에 이어 보충하였다. 그리고 중간본의 틀린 글자 등을 考校하여 개정하였다. 이 판에는 정인홍의 문인인 嶧陽 文景虎(1556-1619)가 광해군 1년(1609) 1월에 쓴 刊書跋이 있다. 광해군 즉위년(1608) 10월부터 간서발을 쓴 이듬해 1월까지의 넉 달 동안에 공역이 완결되었을 것이다.⁵⁰⁾ 刊役은 前板들과 마찬가지로 해인사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간행된 판본이 덕천서원판본으로 당시 덕천서원 원장이었던 滄州 河愷(1563-1624)이⁵¹⁾ 주도하고⁵²⁾ 경상도관찰사 유영순의 도움을 받아 간행되었다.⁵³⁾ 권말에 ‘天啓壬戌仲秋 德川書院改校’라는 간기가 있어서 광해군 14년(1622) 8월에 덕천서원에서 개교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에 간행지 표시는 없지만 당시 덕천서원은 진주에 소재했음이 확실하므로 간행지는 晉州가 되겠다.

앞서 거론한 세 종류의 조식 문집 판본들은 모두 정인홍이 사는 합천의 해인사에서 판각하고 보관한 것으로 보이나, 이 판부터는 줄곧 덕천서원에서 조식의 정신적 계승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에서는 문경호의 발문이 삭제되고, 정인홍이 초간본을 간행할 때인 선조 37년(1604) 8월에 쓴 <神道碑銘并序>가 맨 뒤에 수록되어 있다. 4권 중에 권1, 2는 詩文, 권3은 祭文 등을 모은 부록이다. 그리고 권4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앞서 광해군 1년(1609)에 간행한 판본의 보유로서 25장까지이고, 27장부터 33장까지는 <南冥先生集追錄>으로 되어 있다. 추록에는 광해군 7년(1615) 이후에 작성된 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개교할 때에 수집하여 덧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판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인조반정이 있는 뒤 정인홍이 역적으로 처형되자 그가 주편한 『南冥先生集』에도 화가 미쳤다. 효종 2년(1651)에 李集

50) 金侖壽(1992), 213.

51) 河愷은 광해군 6년(1614)에 취임하여 인조 2년(1624)까지 원장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2000), 86 참조).

52)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2000), 85.

53) <<http://soback.kornet.net/~jungpo/남명선생문집책판.html>> [2010. 8. 22. 검색].

(朝鮮, ?-?)과 河自渾(朝鮮, ?-?)이라는 유생이 덕천서원에 난입하여 『南冥先生集』의 책판 중 정인홍 관계 책판을 다 부숴버렸다. 그러자 덕천서원 원장 참봉 尹承慶(朝鮮, ?-?)이 두 유생을 停擧시키고 책판을 원래대로 복원시켰다.⁵⁴⁾ 정인홍이 조식을 위해 지은 서문, 발문, 신도비, 행장 등의 책판이 부서진 것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정밀히 복각했을지라도 이 부분들은 필체나 판각 상태가 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시 復板된 것을 復板한 것으로 인출하였다면 이전의 판본과 구별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광해군 14년(1622)의 덕천서원판본으로 알려진 책들 중에는 효종 2년(1651)의 복판이 섞인 책판으로 인쇄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복판이 섞인 판본은 기왕에 광해군 14년(1622)의 덕천서원판본으로 알려진 책들을 모두 모아 비교하면 그 존재의 여부를 알 수 있겠으나, 아직 그 부분에까지 미치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다음의 간행은 현종 12년(1671)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종 11년(1670)에 조식의 문집에서 정인홍 관계 문자를 삭제하자는 주청이 있자, 임금이 이를 윤허하여 정인홍이 지은 글 및 정인홍이란 이름 등을 삭제하는 釐正作業이 이루어졌다. 현종 11년(1670) 10월 7일에 執義였던 默齋 申命圭(1618-1688) 등이 아뢰기를,

영남 진주의 先正臣 조식의 서원에 조식의 문집이 있는데, 문집 가운데 부록은 모두 賊臣 (정)인홍이 선정신 이언적과 이황을 모욕하거나, 昏朝 때의 흉적들이 (정)인홍을 숭상하는 글입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선비들이 이것을 개탄하여 그 문집의 책판을 가져다 깨부숴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무리 河洛, 河達源[遠], 尹承慶 등이 깊이 원망을 품고, 즉시 서원 안에 들어가 공인을 불러 다시 새기고 또 그 復판한 선비를 벌주었습니다. 먼 지방의 악습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道臣으로 하여금 조식의 문집 부록 가운데 (정)인홍 등 여러 역적들의 더러운 글들을 모두 속히 깎아버리게 하시고, 아울러 하락 등이 흉적을 추존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⁵⁵⁾

54) 金侖壽(1992), 217.

55) 『朝鮮王朝實錄』 顯宗改修11年 10月 辛卯(條).

“嶺南晉州地 先正臣曹植書院 有曹植文集 而集中附錄 盡是賊臣仁弘 醜辱先正臣李彥迪·李滉 及昏朝凶賊輩 尊崇仁弘之文字也 數十年前 有一士人輩 慨然於此 乃取而斲毀 之一種 異議者河洛·河達源[遠]·尹承慶等 深懷憤恚 卽入院中 招工復刊 又罰其毀板

하니, 임금이 따랐다. 그런데, 『宋子大全』의 <續拾遺> 권1에 보면, 이 어명이 내리
기 바로 전 해인 현종 10년(1669) 2월 29일에 尤菴 宋時烈(1607-1689)이 德川院
儒 崔綱(朝鮮, ?-?)의 소청에 답한 서신이 있는데, 이의 별지에 조식의 문집에
대한 6조목으로 된 이정작업의 대략적인 지침이 실려 있다. 『道先生案』에 의하
면, 공교롭게도 당시 경상감사로 재임한 사람은 송시열의 문인인 認齋 閔著重
(1625-1677)이었다. 그는 현종 10년(1669) 6월에 부임하여 현종 13년(1672) 정월
에 떠났다. 민시중이 부임하기 몇 달 전인 2월에 송시열이 이정의 지침을 정한
바가 있었으므로 민시중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부임한 다음해 10월에
왕의 윤허가 내려졌으니, 왕명 하달 기간을 거쳐 현종 12년(1671)에는 道臣의 책임
으로 소략하게나마 時諱釐正的 補刻 작업을 완수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이정작
업은 송시열의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여 6조의 내용대로 고쳐져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이정작업의 대략적인 지침이 실려 있는 송시열의 답신이 덕천원유의 소청
에 대한 답신인 점과 당시 책판이 덕천서원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민시중의 지시 하에 덕천서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상
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자료실에는 그 복사본⁵⁶⁾이 있어서 당시 印役이 이루어졌음
도 분명하다. 4권으로 이루어진 이 판본에서는 정인홍 관계 부분의 수정 및 삭제
는 물론, 권말에 있던 ‘天啓壬戌仲秋 德川書院改校’라는 기록도 삭제되고, 정인
홍의 신도비문 대신 思湖 吳長(1565-1616)의 <德川書院上樑文>이 맨 뒤에 자
리 잡고 있다.⁵⁷⁾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의 간행에 관계되는 책판이 바로 『鏤板考』에 수록
된 책판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먼저 간행된 판본의 서지사항이다.

南冥先生文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重刊). -- [晉州] : [德川書院],
[肅宗 28(1702)]

士子 遐方惡習 誠極寒心 請令道臣 亟取曹植文集附錄中 仁弘諸賊醜悖文字 盡爲毀去
仍治河洛等推尊凶賊之罪.”

56) 古 D3B H조51ㄴ.

57) 金侖壽(1992), 218-220.

文集5卷5册, 別集9卷3册, 共8册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 × 18.9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學記跋(南冥先生文集 卷4末): 鄭蘊. [再書]

學記類編後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鄭蘊. [再書]

南冥先生別集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崇禎丙子(1636)二月日後學高陽朴網謹識

南冥先生別集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崇禎十三年庚辰(1640)日南至後學晉陽河弘度謹跋

南冥先生別集跋(南冥先生別集 卷2末): …索跋語于[趙]任道…

위의 현종 12년(1671)경에 일차 이정작업이 이루어진 판본이 간행된 후, 숙종조에 이르러 조식의 문집을 전면 개편, 개간한 『南冥先生文集』 5권5책과 無悶堂朴網(1583-1640)이 편찬한 『山海師友淵源錄』 9권을 改題하여 처음 간행한 『南冥先生別集』 9권3책이 따로 간행되었으나, 한 질로 편성되어 유통되었다. 이런 연유로 둘을 합하여 『南冥先生合集』이라 부르기도 한다.⁵⁸⁾ 문집의 권1, 2는 시문, 권3, 4는 학기류편, 권5는 부록이다. 이전 판까지는 본집과 보유에 흠여져 있던 조식의 시문을 이 판에서는 한데 모아 엮어 권1, 2에 통합 분류 편집하였고, 따로 간행 유통되던 『南冥先生學記類編』 상하2책을 권3, 4에 상하로 편입하였고, 권5에 부속 문건을 모아 부록으로 편성한 것이다. 별집의 권1은 조식의 世系와 年譜, 권2는 言行總錄 등이고, 권3-9는 師友錄이다. 그리고 별집 권1 끝에 박인, 謙齋 河弘度(1593-1666) 및 澗松 趙任道(1585-1664)의 발문이 붙어 있다. 이 별집은 숙종 28년(1702)에 초간된 것으로 밝혀졌고,⁵⁹⁾ 『南冥先生文集』은 이보다 조금 앞서 중간한 것으로 짐작되나 거기에 대한 근거 문헌은 없다.

위와 같이 이 판본을 찍은 책판은 그 이전에 판각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58) 金侖壽(1992), 220.

59) 오이환, “『南冥集』 重刊本の 성립,” 『철학논총(세한철학회)』 제32집 제2권(2003. 4), 5.

『南冥先生文集』 5권은 전면 개편하되, 앞에서 밝혔듯이 권3, 4에 별행되던 광해군 9년(1617)간 『南冥先生學記類編』 상하를 편입하면서 그 책판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각 혹은 매목한 것이고, 『南冥先生別集』 9권은 초간한 것이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 시에도 이 책판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쓰였기에, 정조 20년(1796)에 편찬된 『鏤板考』에 晉州 德川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南冥集 五卷, 別集 九卷’에 해당하는 책판은 앞서 말한 것처럼, 광해군 9년(1617)에 새긴 『南冥先生學記類編』 책판의 대부분과 숙종 28년(1702)에 『南冥先生文集』 간행을 위해 새로 새겼거나 매목한 책판들 중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 시에 그대로 이용된 책판들, 그리고 영조 40년(1764)경의 간행을 위해 새로 새겼거나 매목한 책판들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鏤板考』에 기록된 책판 중 일부는 이 판본의 간행을 위해 판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본에 간기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로 인해 덕천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단정 지어어도 좋을 것이다. 하나는 문집의 권3, 4에 광해군 9년(1617)에 덕천서원에서 새긴 『南冥先生學記類編』 상하의 책판 대부분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숙종 28년(1702) 이 판본이 간행된 직후에 東岡 金宇顥(1540-1603) 측에서 별집 간본을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通文⁶⁰⁾을 보내자, 박인측의 龍淵書院이 덕천서원에 박인의 편찬을 옹호하고 改刻을 반대하는 通문⁶¹⁾을 보낸 바가 있기 때문이다.⁶²⁾ 여기에서 덕천서원에 통문을 보낸 이유는 이 판본을 덕천서원에서 간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본은 曹永哲, 朴永弼, 曹台和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도 별집⁶³⁾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을 경인문화사에서 1989년에 영인하여 韓國歷代文集叢書의 『南冥先生文集』 2에 수록하였다.⁶⁴⁾ 그

60) 星州通文.

61) 『卞誣錄』, 筆寫本, 第26項 <龍淵書院通德川書院文 壬午十一月十五日>.

62) 金侖壽(1992), 227.

63) D3B 94A.

64) 曹植, 『南冥先生文集』 2(韓國歷代文集叢書 205) (서울: 景仁文化社, 1989).

리고 南冥學研究院에서는 2000년에 조영철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박영돈·조태화 소장본으로 보충하여 「南冥集 四種」에 영인 수록하였다.⁶⁵⁾ 그런데 「韓國歷代文集叢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3인의 발문이 별집 권1말에 수록되어 있는 반면, 「南冥集 四種」에서는 별집 권2말에 수록되어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숙중 28년(1702) 간본 다음에 간행된 판본의 서지사항이다.

南冥先生文集 / 曹植(朝鮮) 著. -- 木板本(重刊). -- [晋州] : [德川書院], 英祖 40(1764)跋

文集5卷5册, 別集9卷3册, 共8册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2.3 × 18.9 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南冥先生別集跋: 崇禎丙子(1636)二月日後學高陽朴綱謹識

南冥先生別集跋: 崇禎十三年庚辰(1640)日南至後學晉陽河弘度謹跋

南冥先生別集跋: …後學趙任道謹識

南冥先生別集校正跋: 崇禎三甲申(1764)孟冬…金墩…

南冥先生別集校正跋: 崇禎三甲申(1764)孟秋日後學泰安朴挺新書

영조 40년(1764)경에 默齋 金墩(1702-1770), 漁隱 朴挺新(1705-1769) 및 愧窩 河大觀(1698-?)이 숙중 28년(1702)의 판에서 문집의 책판은 거의 바꾸지 않고 별집의 책판을 많이 교정하여 개간한 것인데,⁶⁶⁾ 주로 연보를 많이 고쳤다. 숙중 28년(1702)판에서는 별집 권1의 끝에 두었던 기존의 세 개의 발문을 이 판에서는 권9의 끝으로 옮기면서, 그 뒤에 영조 40년(1764) 10월과 7월에 김돈과 박정신이 각각 쓴 <南冥先生別集校正跋>을 추가 수록하였다.

이 판본에 간기는 없지만, 개간에 이용된 직전 책판이 덕천서원에서 관각된

65) 曹植, 「南冥集 四種」 (진주: 南冥學研究院出版部, 2000).

66) 오이환(2003. 4), 5와 金侖壽(1992), 226-229 참조.

것이 확실하므로 이 판본 또한 덕천서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간행년은 위에서 기술한 영조 40년(1764) 10월에 김돈이 쓴 <南冥先生別集校正跋>의 작성시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책판의 장판기록은 앞의 『南冥先生學記類編』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林園十六志』, 『鏤板考』, 『嶠南冊錄』 및 『五車書錄』에 있는 기록이 이 판본의 책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판본의 인출을 위해 새로 새겼거나 매목한 책판 외에 숙종 28년(1702)의 간행에 사용된 책판들 중 그대로 이용된 책판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숙종 28년(1702)의 간행에 사용된 책판들 중에는 『南冥先生學記類編』 책판 중 그대로 이용된 책판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鏤板考』에는 “그 별집 9권은 崇禎 丙子(1636)에 박인이 세계, 연보 및 언행록, 사우록을 합편한 것으로 英宗 甲申(1764)에 김돈 등이 訂正하였다”⁶⁷⁾는 해제까지 있어서 이 판본을 인출한 책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판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811.081 조식남口 -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대학원 D1 A714B, 육당 D1 A45),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810.819 조59ㄴ-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362), 滿雪軒, 전남대학교 도서관(고종 OC4B1조59ㄴ2, OC4B1조59ㄴ-) 등에 완본 혹은 결본들이 소장되어 있다.

4.2 彝尊錄⁶⁸⁾

『鏤板考』, 史部の 傳記類에 密陽 禮林書院에 장판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彝尊錄 二卷’⁶⁹⁾에 해당하는 책판의 인본에 대한 서지사항이다.

彝尊錄 / 金宗直(朝鮮) 著. -- 木板本(重刊). -- [密陽] : 禮林書院, 仁祖

67) “其別集九卷 卽崇禎丙子 朴綱 以世系·年譜及言行錄·師友錄合編者 英宗甲申 金墩等 訂正.”

68) 이 책판의 판본에 대한 것은 필자가 “密陽 禮林書院版本考”로 이미 발표한 내용(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2004. 2), 377-379)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69) 徐有榘 等編(1941), 972.

27(1649)

2卷, 附錄, 共1册 : 插圖, 四周單邊 半郭 23.0 × 17.0 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被傳者: 金叔滋(1389-1456)

序: 弘治十年丁巳(1497)仲夏端午後一日門人曹偉序

跋: 天順二年戊寅(1458)四月日[金]宗直識

跋: 弘治丁巳(1497)臘月日甥通訓大夫行眞海郡守康伯珍謹識

刊記: 弘治十年丁巳(1497)始得鋟梓壬辰(1592)兵燹泯沒不傳百餘年後至己丑(1649)年文集則方伯李公曼更爲印布彝尊錄則重刊于禮林書院

예림서원에 주벽으로 모셔져 있는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이 그의 부친 鳳巖 金叔滋(1389-1456)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 한 사대부 가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史料이다. 서명 중의 ‘彝尊’은 『禮記』祭統篇의 孔悝의 鼎銘에서 ‘겨울 제사 때 彝鼎에 새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선조의 아름다운 일을 鼎에 새겨서 후세에 전한다는 의미이다.⁷⁰⁾ 김종직이 부친상을 마친 세조 4년(1458)에 편찬하고, 성종 11년(1480)에 모친상을 당하여 다시 교정한 것이다. 저자의 생질인 無名齋 康伯珍(1449-1504)이 연산군 3년(1497)에 흥해에서 간행하고, 판목은 善山으로 옮겨서 보관하였다. 그 후 인조 27년(1649)에 예림서원에서 중간하였으며, 문집에 합부되었다.

상권의 譜圖·紀年·師友는 각각 김숙자의 가계와 연보, 사위 관계를 기술한 것이고, 하권의 事業·祭儀는 학문과 출처, 奉祭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附錄은 저자의 외조부인 朴弘信(1363-1419)의 傳과 어머니 朴舍人의 행장이다. 권두에는 초간 때인 연산군 3년(1497)에 梅溪 曹偉(1454-1503)가 쓴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같은 해에 쓴 강백진의 발문이 각각 실려 있다.

권말의 識에 附記된 간기에 ‘弘治 10년 丁巳年(연산군 3, 1497)에 처음으로

70)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kr>> [2011. 11. 12. 검색].

관각을 하였으나 壬辰年(선조 25, 1592)의 兵火로 인하여 없어져 전하지 않았다. 백여 년 뒤인 己丑年(인조 27, 1649)에 문집은 方伯 李曼(1605-1664)이 다시 印布하였고, 『彝尊錄』은 예림서원에서 중간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인조 27년(1649)에 예림서원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간기의 기록 중 임진왜란 백여 년 뒤의 기축년을 숙종 35년(1709)으로 파악하여 간행년으로 기록한 자료들이 더러 있으나,⁷¹⁾ 이는 이만의 생몰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한 오류이다. 이만은 선조 38년(1605)에 태어나 현종 5년(1664)에 죽었으므로, 기축년은 인조 27년(1649)이 분명하다.

『鏤板考』 외의 장관기록으로는 『林園十六志』의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樓板, 史類條에 『鏤板考』와 동일한 기록이 있다.⁷²⁾

판본은 경성대학교 도서관(古(면우) B91 김75○, 古(오림) B9C 김75○),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920.05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B12 A16), 국립중앙도서관(古2511-10-22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3428-826, 古 4650-157, 奎 1522, 奎 2543, 奎 6687, 奎 12051),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923.251-김57ㄱ),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B09C-0442-省軒)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4.3 咸安趙氏十忠實錄⁷³⁾

『鏤板考』, 史部の 傳記類에 咸安 西山書院에 장관되어 있는 것으로 소재되어 있는 '趙氏十忠實錄 一卷'⁷⁴⁾에 해당하는 책판은 2종의 판본을 간행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중 먼저 간행된 판본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71) ① 慶尙大學校 圖書館 編, 『漢籍目錄』 (晉州: 慶尙大學校 出版部, 1996).
② 李春熙, 『朝鮮朝의 教育文庫에 관한 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4), 153.
③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修正版 (서울: 서울大學校奎章閣, 1994), 1687.
72) 徐有榘 編([刊寫年未詳]), 864.
73) 이 책판의 판본에 대한 것은 필자가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로 이미 발표한 내용(윤상기(2009. 12), 317-319)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74) 徐有榘 等編(1941), 966-967.

咸安趙氏十忠實錄 / 趙希孟(朝鮮) 編 ; 趙輝晉(朝鮮) 重訂. -- 木板本(初刊).

-- [咸安], 西山書院, 正祖 8(1784)序

26張 : 四周雙邊 半郭 19.3 × 14.8 cm,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元集): 趙氏十忠實錄

藏板記: 西山書院藏板

手書刻序: 聖上八年(正祖 8, 1784)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孫左賓客奎章閣提學平康蔡濟恭謹書

識: 歲丁丑(1757)仲春下澣道谷公玄孫[趙]希孟敬書

識: 聖上五年辛丑(1781)黃花節忠毅公後孫[趙]輝晉敬書

識: 忠毅公後孫[趙]滂敬書

咸安趙氏의 열[十] 충신에 대한 事蹟을 기록한 책으로, 趙希孟(朝鮮, ?-?)이 編하기 시작하여 후손인 趙養愚(朝鮮, ?-?)가 輯成하였으며, 후손 東窩 趙輝晉(1729-1796)이 重訂했다.⁷⁵⁾

열 충신은 漁溪 趙旅(1420-1489)와 그의 후손들인 趙鵬(1534-1592), 斗巖 趙瑯(1557-1638), 大笑獻 趙宗道(1537-1597), 趙俊男(1547-1592), 趙信道(1554-1585), 趙敏道(1556-1592), 松塢 趙凝道(?-1597), 道谷 趙益道(1575-1647), 默谷 趙善道(1580-1640) 및 趙繼先(1570-1627)을 일컫는다.⁷⁶⁾

75) ① 徐有渠 等編(1941), 966.

“李朝趙希孟編, 後孫輝晉重訂.”

② 趙希孟 編; 趙輝晉 重訂, 『咸安趙氏十忠實錄』 26張,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正祖 18(1794)序), <識>[趙滂].

“族大父希孟氏 始收錄之 宗侄養愚 又輯成之 三從弟輝晉 又以樊菴蔡相公之文 …”

76) 徐有渠 等編(1941), 966.

“十忠者 趙旅·趙鵬·趙瑯·趙宗道·趙俊男·趙信道·趙敏道·趙凝道·趙益道·趙善道·趙繼先也.”

판본에 간행 기록은 없으나 권말에 ‘西山書院藏板’이라는 장판기가 있어서 서산 서원에서 간행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책판의 간각시에 새겨 넣은 장판지는 다른 곳에서 간각 및 인출한 후에 책판만 장판시키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간행자와 동일시해도 좋을 것이다. 장판기에 장판지 표시는 없다. 이 책의 간행 무렵에 서산 서원이라 불리던 곳은 이 곳 외에도 상주, 전주, 평양 등지에도 있었으나, 조려를 배향한 곳은 이 곳 함안의 서산서원 뿐이다. 따라서 표제지의 서산서원은 함안 소재의 서산서원임이 틀림없다. 간행년은 권두에 있는 樊巖 蔡濟恭(1720-1799)이 정조 8년(1784)에 지은 서문의 작성시기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鏤板考』 외의 장판기기록으로는 『林園十六志』의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樓板, 史類條에 『鏤板考』와 동일한 기록이 있으며,⁷⁷⁾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아래의 咸安條와⁷⁸⁾ 『冊板錄』의 慶尙道各邑所在冊板 아래의 咸安條에도⁷⁹⁾ 각각 ‘十忠錄 一卷’이 소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다 같이 ‘在西山書院’이라고 되어 있다. 『林園十六志』와 『鏤板考』의 ‘趙氏十忠實錄 一卷’은 ‘서명 권수’의 표시이지만, 『書冊目錄』과 『冊板錄』의 ‘十忠錄 一卷’은 ‘서명 책수’의 표시이다. 『書冊目錄』과 『冊板錄』은 『林園十六志』와 『鏤板考』와는 달리 책수를 표기할 때 단위를 모두 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咸安趙氏十忠實錄』의 경우에는 불분권 1책으로 되어 있어서 권수와 책수가 같아 사실상 표기상의 차이는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慶尙道邑誌』에서도 장판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제15책에 수록된 <咸安郡邑誌>의 마지막에 있는 冊板條에 ‘十忠錄板’이 西山書院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⁸⁰⁾

이 판본을 찍은 책판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밝히겠지만, 정조 18년(1794)경에 세[三] 충신에 대한 사적을 새로 새겨 합부하여 다시 인출할 때 그대로 이용된다. 그리고 위의 책판기록들은 모두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기 때문에⁸¹⁾ 결국 위의 책판기록들에 있는 책판들 중 새로 새겨 합부한 책판들을

77) 徐有渠 編([刊寫年未詳]), 862-863.

78) 『書冊目錄』 1冊,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5(1868)-高宗 10(1873)頃),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下(1995), 1215.

79) 『冊板錄』 32張,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 補遺·索引(1995), 1493.

8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713.

제외한 책판들이 이 판본의 인출에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본은 경상대학교 도서관(古(면우) B9C 조97호, 古(오림) B9C 조989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173.3 조휘진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B09C-0443-省軒), 연세대학교(고서(II)929.21-조합안)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정조 18년(1794)경의 『咸安趙氏十忠實錄』 다음에 간행된 판본의 서지사항이다.

咸安趙氏十忠實錄 / 趙希孟(朝鮮) 編 ; 趙輝晉(朝鮮) 重訂. -- 木板本(初刊合附). -- [咸安], 西山書院, 正祖 18(1794)序

34張 : 四周雙邊 半郭 19.3 × 14.8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版心題·序題: 趙氏十忠實錄

版心題(合附): 趙氏十三忠實錄

卷末題(合附): 咸安趙氏十三忠實錄

序題(合附): 趙氏十三忠錄

藏板記: 西山書院藏板

手書刻序: 趙氏十忠實錄序 … 聖上八年(正祖 8, 1784)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孫左賓客奎章閣提學平康蔡濟恭謹書

識: 歲丁丑(1757)仲春下澣道谷公玄孫[趙]希孟敬書

識: 聖上五年辛丑(1781)黃花節忠毅公後孫[趙]輝晉敬書

識: 忠毅公後孫[趙]滂敬書

序(合附): 趙氏十三忠錄序 … 聖上十八年(正祖 18, 1794)輔國崇祿大夫原任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弘文館大提學知成均館春秋館事五衛都摠

81) 『册板錄』에 대해서는 아직 필사년을 추정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진바가 없어서 정확한 필사년을 알 수 없지만 조선조 말기에 필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府都摠管洪良浩序

附: [咸安趙氏三忠實錄]

北溪 趙壽千(1482-1553), 韜巖 趙坦(1551-1612) 및 東溪 趙亨道(1567-1637) 3인의 사적(82) 새로 새겨 위에서 설명한 정조 8년(1784)경의 『咸安趙氏十忠實錄』에 합부하여 인출한 것이다. 합부한 3인의 사적에 대한 題名은 없으나, 원 책의 권수제인 ‘咸安趙氏十忠實錄’의 작명법에 준하여 ‘咸安趙氏三忠實錄’이라 부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책의 서명은 권수제를 따라 『咸安趙氏十忠實錄』이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咸安趙氏十三忠實錄’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합부한 [咸安趙氏三忠實錄]의 序題는 합부를 전제로 지었기 때문에 ‘趙氏十三忠錄’이라 하였고, 권말제도 ‘咸安趙氏十三忠實錄’이라 하였다.

판본에 간행 기록은 없으나 합부한 [咸安趙氏三忠實錄]의 권말에 ‘西山書院藏板’이라는 장판기가 있으며, [咸安趙氏三忠實錄]을 새로 새겨 합부한 것 외에는 정조 8년(1784)경의 『咸安趙氏十忠實錄』의 책판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간행지와 간행자는 마찬가지로 咸安의 西山書院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다만 간행년은 합부된 [咸安趙氏三忠實錄]의 권두에 있는 耳溪 洪良浩(1724-1802)가 정조 18년(1794)에 지은 서문의 작성시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판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만송 B12 A493), 연세대학교(고서(III)2246),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古南991.1-함안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O 929.2 조휘진함), 하버드 연경도서관(TK2294.5/4853)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4.4 漁溪先生集⁸³⁾

『鏤板考』, 集部 上의 別集類 上에 咸安 西山書院에 장판되어 있는 것으로

82) 이 글을 원 책의 권수제인 ‘咸安趙氏十忠實錄’의 작명법에 준하여 ‘咸安趙氏三忠實錄’이라 부르겠다.

83) 이 책판의 판본에 대한 것은 필자가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로 이미 발표한 내용(윤상기(2009. 12), 315-317)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소재되어 있는 ‘漁溪集 二卷’⁸⁴⁾에 해당하는 책판의 인본에 대한 서지사항이다.

漁溪先生集 / 趙旅(朝鮮) 著; 趙榮祜(朝鮮) 編. -- 木板本(重刊). -- [咸安]
: 西山書院, 英祖 18(1742)序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20.6 × 15.2 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藏板記: 西山書院藏板

序: 崇禎紀元後百十有五年壬戌(1742)孟秋潘南朴弼周謹序

序: 正德丙子(1516)十一月上澣晉州姜渾士浩序

跋: 崇禎紀元後百十三季庚申(1740)閏六月壬子九代孫通訓大夫行安陰縣監
[趙]榮祜謹書

조려의 시문집으로 漁溪는 조려의 호들⁸⁵⁾ 중 하나다.

『漁溪先生集』은 중종 11년(1516)에 저자의 손자인 鷗村 趙績(1619-?) 형제가 詩 약간 首를 모아 木溪 姜渾(1464-1519)의 序를 받아 초간하였다. 그러나 이 초간본은 연대가 오래되고 병란을 거치면서 유실되어 시 수십여 편과 강혼의 서문만이 후손가에 전해져 왔으나, 이 또한 많이 訛誤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⁸⁶⁾

그 후 영조 16년(1740)에 9세손 觀我齋 趙榮祜(1686-1761)가 안음현감으로 있을 때 族人인 趙埜(朝鮮, ?-?)와 더불어 諸本을 모아 서로 참고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고 敍次를 바로잡아⁸⁷⁾ 영조 18년(1742)경에 목판으로 중간한 것이 이

84) 徐有榘 等編(1941), 1084-1085.

85) 漁溪·漁溪隱者.

86) 趙旅 著, 『漁溪先生集』 2卷1冊,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英祖18(1742)序), <跋>[趙榮祜], 張1.

“先生旣沒之後二十八年 孫參判公兄弟 刻其遺集 而木溪姜判書渾 爲之序 年代已遠 且經兵燹 所刻舊本 失而不傳 獨其詩律數十餘篇 及木溪子序文 間或書傳於後孫之家 而亦多訛誤 幾不可識 則爲子孫之慨恨久矣.”

87) 趙旅 著(1742)序), <跋>[趙榮祜], 張1左-2右.

“榮祜來監安陰 趙埜史汝氏 自咸安至而言曰 先生遺篇 所存雖極少 不可使遂以泯沒 子其圖之 此實榮祜之志也 而諸宗人又出錢若干以相役 卽收京鄉所在諸本 與史汝氏 參考同異 正其誤而釐其敍次.”

판본이다. 이 중간본은 저자의 傳·碑銘 및 기타 저자와 관련된 詩文·疏啓 등을 권2에 부록하여 2권1책으로 묶고 黎湖 朴弼周(1665-1748)의 序와 편자의 跋을 붙여 간행한 것이다.

판본에 간행 기록은 없으나 표제지에 ‘西山書院藏板’이라는 장판기가 있어서 서산서원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장판기에 장판지 표시는 없다. 이 책의 간행 무렵에 서산서원이라 불리던 곳은 이 곳 외에도 상주, 전주, 평양 등지에도 있었으나, 조려를 배향한 곳은 이 곳 함안의 서산서원 뿐이다. 따라서 표제지의 서산서원은 咸安 소재의 西山書院임이 틀림없다. 간행년은 권두에 있는 박필주가 영조 18년(1742) 7월에 지은 서문의 작성시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장판기로 간기를 갈음한 것은 위의 4.3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鏤板考』 외의 장판기록으로는 『林園十六志』의 怡雲志 7, 圖書藏訪, 京外樓板, 集類條에 『鏤板考』와 동일한 기록이 있으며,⁸⁸⁾ 『書冊目錄』의 各邑所在 아래의 咸安條와⁸⁹⁾ 『冊板錄』의 慶尙道各邑所在冊板 아래의 咸安條에도⁹⁰⁾ 각각 ‘漁溪集一卷’이 소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다 같이 ‘在西山書院’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慶尙道邑誌』의 제15책에 수록된 <咸安郡邑誌>의 마지막에 있는 冊板條에도 ‘漁溪集板’이 西山書院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¹⁾

판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811.081 조려어),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 A249),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5-가9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4561), 동국대학교(810.819-조640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03B-0696), 영남대(151.51)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4.5 龜巖先生集

『鏤板考』, 集部 上の 別集類 上に 泗川 龜溪書院에 장판되어 있는 것으로

88) 徐有渠 編([刊寫年未詳]), 883.

89) 『書冊目錄』(1868-1873頃), 1215.

90) 『冊板錄』([刊寫年未詳]), 1493.

91) 韓國學文獻研究所 編(1982), 713.

소개되어 있는 ‘龜巖集 二卷’⁹²⁾에 해당하는 책판은 2종의 판본을 간행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중 먼저 간행된 판본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龜巖先生集 / 李楨(朝鮮) 著 ; 許穆(朝鮮) 編. -- 木板本(初刊). -- 泗川 : 龜巖書院, 仁祖 19(1641)

87張 : 四周單邊 半郭 21.0 × 17.4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刊記: 崇禎十四年(仁祖 19, 1641)正月日泗川龜巖書院開刊

序: 皇明崇禎紀元己卯(1639)冬十月後學漢陽後人趙綱謹撰

跋: 皇明崇禎紀元十三年(庚辰, 1640)仲穉下澣後學陽川許穆熙和謹跋

有司秩: 書寫 庶曾孫 李涵一, 齋有司 白瑞翰, 文集修正有司 白瑞羽

龜巖 李楨(1512-1571)의 시문집이다.

이정의 시문집은 원집, 속집 및 별집이 차례대로 간행되었는데, 이 판본은 가장 먼저 간행된 원집이다. 원집은 眉叟 許穆(1595-1682)이 인조 18년(1640)에 병자호란을 피하여 의령에 있을 때 泗川 龜巖書院 유생들의 청탁에 따라 그들이 수집해 온 시문을 1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권말에 허목이 인조 18년(1640)에 쓴 발문이 있는데, 허목은 이 발문에서 저자의 고향인 사친의 諸生들이 그를 추모하여 병화에 없어지고 남은 유고를 수집한 것을 가져와 부탁함으로써 刪定하고 교정하게 되었음을⁹³⁾ 기록해 두고 있다. 또한 「鏤板考」의 해제에도 ‘원집 1권은 허목이 편했다’⁹⁴⁾고 되어 있다.

「鏤板考」에 소개되어 있는 ‘龜巖集 二卷’에서 ‘二卷’은 이 원집과 다음에 서술

92) 徐有渠 等編(1941), 1101.

93) “今其遺藁殘缺 而幸傳於兵亂散失之餘 僅十存二三 泗上諸生 尊慕之不衰 凡片言隻字 爲可貴重於後世者 謀所以不泯而將剝剝之 顧其編簡錯雜 又多不完 誤以余頗事古人緒餘 來問於余 余以備陋固讓之 率不得 冒其僭猥 爲之刪定序次如右.”

94) 徐有渠 等編(1941), 1101.

“原集一卷 許穆編.”

할 속집을 함께 이룬 표현이다.

간행은 권말에 ‘崇禎十四年正月日 泗川龜巖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인조 19년(1641) 1월에 사천의 구암서원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구암서원은 이정의 호를 딴 명칭으로 숙종 2년(1676)에 ‘龜溪’라는 사액을 받기 전까지 사용한 서원명이다. 또한 권말에는 유사질도 있어서 書寫는 저자의 庶曾孫인 一查 李涵一(1562-1621)이, 齋有司는 白瑞翰(1613-1683)이, 문집의 修正有司는 寒岡 鄭述(1543-1620)의 문인인 海亭 白瑞羽(朝鮮, ?-?)가 맡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판본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고 811.081 이정거),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만송 D1 A747A), 국립중앙도서관(의산 古3648 文62 304),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03B 0119), 하버드 연경도서관(TK5568.2 4030, TK5568.2 4030.3)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다음은 원집에 이어 간행된 속집의 서지사항이다.

龜巖先生集續集 / 李楨(朝鮮) 著 ; 魚有成 編. -- 木板本(初刊). -- [泗川] : 龜溪書院, 英祖 25(1749)

78張 : 四周單邊 半郭 19.0 × 16.8 cm, 有界, 10行20字, 內向2葉花紋魚尾

刊記: 崇禎三己巳(1749)三月日龜溪書院開刊

序: 皇明崇禎紀元己卯(1639)冬十月後學漢陽後人趙綱謹撰

跋: 歲戊辰(1748)仲秋下澣後學牙城魚有成謹跋

有司秩: 都有司 白尙彥, 齋有司 崔大衡, 文集修正有司 田禹基 崔琬, 寫板有司 鄭再泰 南國升 崔萬甲

위에서 든 이정의 『龜巖先生集』 원집에 이어 편찬된 속집이다.

권말에 平實齋 魚有成(朝鮮, ?-?)이 영조 24년(1748) 8월 하순에 쓴 발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시 지방관으로 재직 중이던 어유성이 泗川儒生 田禹基(朝鮮,

?-?)의 청탁에 따라 그가 가지고 온 초고를 대략 원집의 體例에 따라 1책으로 편집하고 교정하였음을⁹⁵⁾ 밝혀두고 있으며, 「鏤板考」의 해제에도 ‘속집 1권은 魚有成이 편했다’⁹⁶⁾고 되어 있어서 이 속집의 편찬이 영조 24년(1748)경에 어유성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권두에는 원집에 수록되었던 龍洲 趙綱(1586-1669)의 서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 ‘崇禎三己巳(1749)三月日 龜溪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영조 25년(1749) 3월에 구계서원에서 개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원집은 중간하지 않고 속집만 간행하였다. 간기에 간행지 표시는 없다. 구계서원은 당시 이 곳 외에 하동,⁹⁷⁾ 안동, 淸安 등에도 있었으나, 이정을 배향하고 있는 곳은 이곳의 구계서원 뿐이며, 위의 인조 19년(1641)간 원집에 이은 속집이 분명하므로 이 서원의 판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간행지는 泗川이 되겠다.

이 판본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대학원 D1 A747a), 하버드 연경도서관(TK5568.2/4030), 한국학중앙연구원(D3B-1114A)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5. 책판과 관련 판본의 성격

지금까지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의 서원들에서 장관하고 있던 책판들 중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책판들만 추려서 관련 판본들을 찾아내고 책판의 간각과 변화사항, 판본의 성립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서 서원 간판임을

95) 李楨 著; 魚有成 編, 「龜巖先生集續集」 78張, 木板本 ([泗川]: 龜溪書院, 英祖 25(1749)), <跋文>, 張2.

“田君禹基曰 … 已既田君以士林意 請於余曰 是集也 惟刊刷是謀 願得校證 … 遂自讐校 其間字之訛者正之 句之衍者刪之 有以年期而編者 有以意趣而哀者 有以不着於集傳而汗漫者 則不錄 如日記之類 編既成 名之曰續集.”

96) 徐有榘 等編(1941), 1101.

“續集一卷 魚有成編.”

97) 하동 永溪書院의 별칭으로 사용되었음.

밝혔다. 이들 책판과 관련 판본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鏤板考」 소재 경남지역 서원 장판 책판들 중 서원 간행 책판과 관련 판본들의 성격

| 지역 | 서원명 | 책판명 | 분류 | 저자 혹은 피전자와 서원 배향자의 관계 | 관련 판본 | 간행년 | 간각 성격 |
|----|------|----------|--------|-----------------------|----------|-------|-------|
| 晉州 | 德川書院 | 南冥先生文集 | 集部 別集類 | 배향자 | 南冥先生學記類編 | 1617 | 초간 |
| | | | | | 南冥先生文集 | 1702 | 중간 |
| | | | | | | 1764跋 | 중간 |
| 密陽 | 禮林書院 | 彝尊錄 | 史部 傳記類 | 배향자 | 彝尊錄 | 1649 | 중간 |
| 咸安 | 西山書院 | 咸安趙氏十忠實錄 | 史部 傳記類 | 배향자와 그 후손들 | 咸安趙氏十忠實錄 | 1784序 | 초간 |
| | | 漁溪先生集 | 集部 別集類 | 배향자 | 漁溪先生集 | 1794序 | 초간 합부 |
| | | | | | 1742序 | 중간 | |
| 泗川 | 龜溪書院 | 龜巖先生集 | 集部 別集類 | 배향자 | 龜巖先生集 | 1641 | 초간 |
| | | | | | 龜巖先生集續集 | 1749 | 초간 |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지역의 서원들에서 장판하고 있던 책판들은 모두 19종으로 6개 지역의 11개 서원에서 장판하고 있었다. 그 중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책판은 모두 5종인데, 진주 德川書院의 南冥先生文集, 밀양 禮林書院의 彝尊錄, 함안 西山書院의 咸安趙氏十忠實錄과 漁溪先生集 및 사천 龜溪書院의 龜巖先生集으로 4개 지역의 4개 서원에서 장판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14종의 책판들은 서원에서 간행하지 않았거나 서원 간행 여부가 불확실한 책판들이다.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5종의 책판 중 集部 別集類에 속하는 것은 南冥先生文集, 漁溪先生集 및 龜巖先生集의 3종이고, 나머지 彝尊錄과 咸安趙氏十忠實錄 2종은 史部 傳記類에 속하는 것이다.

5종의 책판으로 새겨진 작품들의 저자 혹은 피전자와 책판을 간행한 서원의 배향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그 서원의 배향자들 중 한 사람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모두 배향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咸安趙氏十忠實錄 책판만

배향자 외에 그 후손들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4종의 책판은 모두 배향자 한 사람에 관계된 것들이다. 따라서 배향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5종,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1종이 되어 모두 배향자와 직접 관련되는 책판임을 알 수 있다.

이들 5종의 책판 중 일부 책판에 대해서는 개판 후 「鏤板考」에 수록될 때까지의 장판 기간 중에 필요에 따라 개각, 추각 또는 보각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실제 간행된 판본의 종수도 9종으로 늘어났다. 즉, 南冥先生文集 책판, 咸安趙氏十忠實錄 책판 및 龜巖先生集 책판은 장판 중에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南冥先生文集 책판은 「南冥先生學記類編」과 2종의 「南冥先生文集」을, 咸安趙氏十忠實錄 책판은 2종의 「咸安趙氏十忠實錄」을, 龜巖先生集 책판은 「龜巖先生集」과 「龜巖先生集續集」을 간행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장판 중에 변화가 없었던 彝尊錄 책판과 漁溪先生集 책판으로는 각각 해당되는 서명의 판본 1종씩을 인출하였다.

9종의 판본들이 간행된 시기를 살펴보면, 17c 전기에 간행된 것이 3종, 18c 전기에 간행된 것이 3종, 18c 후기에 간행된 것이 3종이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상 이들 9종의 판본들 중 5종은 초간의 성격을 띠고 있고, 4종은 중간에 해당된다.

6. 나오면서

지금까지 「鏤板考」의 장판기록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鏤板考」에 수록된 경남 지역 서원들에서 장판한 책판들을 대상으로 서원 간행 여부를 밝히되, 우선 서원 간행이 확실한 책판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대상 책판과 관련된 판본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밝혀냈다.

첫째, 「鏤板考」에 수록된 총 6개 지역, 11개 서원의 19종의 책판들 중 서원에서 간행한 것이 확실한 것은 4개 지역의 4개 서원에서 장판한 5종의 책판들로서, 진주 德川書院의 南冥先生文集, 밀양 禮林書院의 彝尊錄, 함안 西山書院의 咸

安趙氏十忠實錄과 漁溪先生集 및 사친 龜溪書院의 龜巖先生集 책판이다.

둘째, 이들 5종의 책판 중 3종은 集部 別集類에 속하고 2종은 史部 傳記類에 속하는 것이다.

셋째, 책판에 판각된 작품들의 저자 혹은 피전자는 모두 책판을 간행한 서원의 배향자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배향자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다.

넷째, 이들 5종의 책판들은 총 9종의 판본의 간행에 이용되었다.

다섯째, 9종의 판본들은 16c 전기, 17c 전기 및 17c 후기에 각각 3종씩 간행되었다.

여섯째, 9종의 판본들 중 5종은 초간에 해당되고, 4종은 중간에 해당된다.

19종의 책판들 중 서원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서원에서 간행하지 않은 것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겠다.

<참고문헌>

<<http://soback.kornet.net/~jungpo/남명선생문집책판.html>>.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minchu.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NAVER 블로그: <<http://blog.naver.com>>.

NAVER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金光洙. “估畢齋先生文集 研究.”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金侖壽. “南冥集 板本 研究上の 爭點.” 『南冥學研究』 第6輯(1996). 11-42.

金侖壽. “『南冥集』의 冊板과 印本の 系統.” 『南冥學研究』 第2輯(1992). 205-255.

김윤수. “『估畢齋集』의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 第35輯(2006. 12). 303-327.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동양문화산책 10). 서울: 예문서원, 2000.

안장헌 사진; 이상해 글. 『書院』. 서울: 열화당, 1998.

- 吳二煥. “南冥集板本考(I): 來庵刊本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韓國思想史學會)』 第1輯(1987). 171-205.
- 오이환. “『南冥集』 重刊本の 성립.” 『철학논총(새한철학회)』 제32집 제2권(2003. 4). 3-50.
- 吳二煥. 『南冥學派研究』 上卷. 진주: 남명학연구원출판부, 2000.
- 윤상기. “경남 진주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9). 295-322.
- 윤상기. “경남 함안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44輯(2009. 12). 301-330.
- 윤상기. “密陽 禮林書院版本考.” 『문화콘텐츠연구(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제9집, 인문학과 문화(2004. 2). 367-402.
- 윤상기. “山淸 德川書院版本考.” 『東義論集(東義大學校)』 第40輯, 人文·社會科學篇(I)(2004. 2). 423-443.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潮閣, 1995.
- 李樹煥. “嶺南地域 書院의 特徵과 教育活動.” 『韓國 書院의 研究動向과 再照明』. 京畿大學校 人文學部 史學科 創設 20週年 紀念 및 溱誠學術研究院 學術심포지엄. 2000. 11. 10. 京畿大學校 浩然館 세미나실. 京畿大學校 溱誠學術研究院 主催.
- 李楨 著; 魚有成 編. 『龜巖先生集續集』. 78張. 木板本. [泗川]: 龜溪書院, 英祖 25(1749).
- 鄭明燮. “慶北地域의 書院建築.”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편. 『毀撤書院調查報告』. [慶山市]: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3(鄉土史研究叢書 第4冊), 257-281.
-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板目錄』(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國學研究叢書 4). 3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趙旅 著. 『漁溪先生集』. 2卷1冊.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英祖18(1742)序.
- 曹植 著; 曹垣淳 編. 『南冥先生文集』. 11卷6冊. 木板本. [德山]: [山天齋], [光武

元(1897)頃].

曹植 著. 『南冥先生集』. 3卷2冊. 木板本. [陝川]: [海印寺], [宣祖 35(1602)-宣祖 37(1604)頃].

曹植 著. 『南冥先生集』. 4卷3冊. 木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海君 1(1609).

曹植. 『南冥先生文集』 2(韓國歷代文集叢書 205). 서울: 景仁文化社, 1989.

曹植. 『南冥集 四種』. 진주: 南冥學研究院出版部, 2000.

趙希孟 編; 趙輝晉 重訂. 『咸安趙氏十忠實錄』. 26張. 木板本. [咸安]: 西山書院, 正祖 18(1794)序.

周世鵬 編; 安炳烈 增補. 『竹溪誌』. 3卷1冊. 木活字本(지깃다리획 印書體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 21(1884)跋.

河致根. “산청군 山淸郡: 읍·면: [시천면 矢川面].”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성남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50.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邑誌』 一 慶尙道 編①.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朝鮮王朝實錄』.